

中 산동성과 교육분야 협력

서 교육감, 주한 산동성 정부 국제무역대표처 관계자들과 국제교육 교류 확대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중국 산동성과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서거석 교육감이 22일 본청을 방문한 주한 산동성 정부 국제무역대표처(수석대표 가계경)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교육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한 주한 산동성 정부 국제무역대표처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교육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가계경 수석대표 등 산동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 교류 네트워크 강화, 산동성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등 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간의 상호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수업을 통한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가계경 수석대표는 "양 기관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산동성도 활발히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올해 2,8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동성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중앙도서관 1층에 대학과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도라운지'를 개소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대학·지역의 연결고리'

전북대 '중도라운지' 개소

전북대학교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중앙도서관 1층에 대학과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도라운지'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 지역인, 지역 기업, 지역 문화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서관 이용 자공간인 개소 축하와 함께 기념 전시가 이뤄졌다.

중도라운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북대 도서관을 지역민과 지역대학 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국고와 RIS 사업비 등 30여 만을 투입해 2,057㎡(622평)의 규모, 500여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 학습 공간, 소통공간, 전시 및 강연 공간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이곳은 지역 대학생과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또 지역 인재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이 될 전망이다.

중도라운지는 도서관 모바일 앱을 통한 출입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고, 도서관 IT 시스템을 통해 심야 운영이 가능하다. 전북 지역 대학생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우수 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 인프라 개선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중도라운지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과 지역에 소통으로 연결되는 융·복합 공간"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연구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사, 미래 바꾸는 희망'

전국교원양성대 총장협의회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1월 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사, 미래를 바꾸는 희망(공복 100년을 향한 교원교육의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런 행사는 정성국, 김대식 국회의원의 원심이 주최하고 전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EBS가 후원했다.

이에 따르면 심포지엄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원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교육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교원의 자격 및 임용 체제 개선을 비롯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부산교대의 박상완 교수와 경인교대의 최원석 교수가 '교원 양성 체제와 교육과정'을 주제로 발표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선빈 박사와 한국교원대학교의 이재덕 교수가 '교사 자격 및 임용 체제'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 시간에는 서울 용양초등학교의 도주원 수석교사, 인천시교육청의 윤기현 감사관, EBS의 이상미 기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와 황지혜 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기계·자동차부품 설계 인력양성 '박차'

현재까지 260여 전문인력 배출

우석대학교 e-카본교육사업단이 기계·자동차부품 설계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도 주관하는 산·학·관 커플링사업 중 기계·자동차부품 설계(카본 CAD·CAE 설계 및 3D프린팅) 분야에 선정, 연간 1억여 원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공학부 내에 기계자동차공학 전공과 전기전자공학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화전력 취업

캠프와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CAD·CAE 교육, CAD·3D 프린팅 경진대회, 자격증반 운영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참여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공학부 재학생에 대한 실습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의사가 밝혀왔다.

현재까지 26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머나먼 열사의 땅 아프리카 여행의 회고 담다

전북대 정석권 명예교수-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 출간

정석권 전북대 명예교수(영어영문학과)와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철수를 맞아 아프리카 여행에서의 다양한 회고를 담은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를 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두 친구가 아프리카 6개국을 25일 동안 여행하면서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철수를 맞은 두 사람이 머나먼 열사의 땅 아프리카를 도전 정신을 갖고 여행에 참여했다.

먼저, 에티오피아 다나킬 2박3일 오지투어에서는 섭씨 43도가 넘는 열사의 땅에서 약진고투하며 체력의 극한 상황까지 몰리기도 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또다른 행성을 경험하는 듯한 자연환경과 동물들도 접했다. 이 모든 감동의 순간들을 평생 기억 속에 붙잡고 싶은 바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어 나미비아에서는 나미브 사막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지상 만피트 상공에서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기도 했다. 보츠와나에서는 초베 국립공원에서 리버사파리



정석권 전북대 명예교수(사진 왼쪽)와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석권 명예교수는 "24박 25일의 아프리카 여행은 칠십이던 나이에 들어선 나에게 두근거리는 긴장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아스라한 추억으로 남겠지만 남긴 글들과 사진들이 우리의 사라진 시간을 다시 소환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를 하며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짐비아와 짐바브웨에 걸쳐 있는 빅토리아 폭포의 거센 물보라를 맞으며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했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과 세렝게티 국립공원까지 두 사람은 즐거움과 고생을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스타일로 여행을 기록했다.

매일 쓴 여행기는 현장중계하듯 그날그날 함께 여행했던 여행단원들과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다른 지인들에게 글을 보냈고, 그 글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같은 여행 다른 시선의 여행기가 됐다.

2025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입학 '입소·입학신청사이트'에서 신청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1일 우선모집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입소·입학신청사이트(구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5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우선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2025학년도 유아모집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입학 신청이 일원화된다.

이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입학, 어린이집 입소 창구를 일원화 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른 학부모 서비스 사전 회원 가입은 28일부터 가능하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입소·입학신청사이트'에 가입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로 3회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 순위는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 3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가정 자녀 등으로 해당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유아모집 선발일,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 등 시스템 사용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입소·입학신청사이트는 유보통합을 위한 것으로, 유치원 입학과 어린이집 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를 통해 영유아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며 "공·사립 유치원이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를 통해 유아를 공정하게 모집·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임실군과 RISE 기반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1일 임실군(군수 심민)과 RISE 기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진배 총장 및 심민 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효 문화 연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기반 정주형 인재 양성 △지역 혁신 공유·협업 촉진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LG 사회복지 공모 선정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이 사회복지공모모금회와 LG의 공모사업 '새로운 사회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결방안 지원사업 희망플러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회문제에 의해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이날 전북지원단에 따르면 '농촌 및 소도시 다문화 사각지대 아동의 컨소시엄형 국제문화 리더십 성장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소통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서비스 제공의 전북형 다문화 아동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LG사이언스파크 컨버전스홀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변화' 기업사회 공헌 컨퍼런스에 초대돼 300여 명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발표해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을 포함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2025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도내 교원단체,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질타

'공·사립 상생 유아교육 펼쳐야'

전북교총을 포함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2025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22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유아교육정책협의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400여 명의 유치원 교원이 참여해 전북교육청의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지난 9월 한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립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이 최대 9명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를 제기, 공·사립 동일 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한 오문하 전북교총교정정책연구소 유초등분과위원장(황등남초 교사)은 "현재 기준대로 사립유치원 5세반 학생이 한 반에 최대 25명이 편성된다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안전사고와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해진다"면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별을 멈추고 상생의 유아교육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